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9권 제3호

ISSN : 2287-2825(Print)

1970-80년대 서유럽으로 유학한 한인 여성의 임파워먼트 형성과정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남혜경, 김영순

To cite this article : 남혜경, 김영순 (2020) 1970-80년대 서유럽으로 유학한 한인 여성의 임파워먼트 형성과정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3, 157-197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1970-80년대 서유럽으로 유학한 한인 여성의 임파워먼트 형성과정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남혜경** · 김영순***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70-80년대 서유럽으로 유학한 한인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생애사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와 독일로 각각 유학한 한국 여성 두 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나타난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인식, 자기 삶에 대한 주도성,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적 자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삶에서 자신의 무력감에 관한 인지를 통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굴복하는 대신 개인의 주도성과 주변 인물들과의 상호작용, 협력, 지지, 그리고 연구참여자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발전하였다. 이들은 생애 동안 자기 자신이 되는 삶을 살아왔으며, 계속되는 성찰적 삶은 자신을 찾는 과정이 되고 있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과의 소통은 미약하다. 한국 사회와 재외한인 여성들의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해 이들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유학, 한인 여성, 생애사, 임파워먼트, 정체성

* 이 연구는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4055802).

** 주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I. 서론

본 연구는 1970-80년대에 유학한 후 결혼하여 거주국에 정주한 한국 여성의 생애 전반에 나타난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1970년대에 프랑스로, 그리고 1980년대에 독일로 각각 유학한 두 명의 한국 여성의 삶을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생애사 연구는 행위 주체인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특정한 삶의 환경을 구성하는지를 탐구하며, 사회적 조건에 따른 개인의 변화과정을 포착하는데 유용하다(Ojermark, 2007; 이동성, 2013: 72 재인용). 유학은 완전한 이주를 의미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다시 돌아옴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유학 후 결혼을 통한 거주국의 정주는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이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두 연구참여자가 유학 과정에서 결혼과 정주를 선택한 후 이주자로서 거주국에서 임파워먼트를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찾고자 한다.

1970년대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평균 3.4% 정도였으며, 이 시기에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여성은 극히 소수였다(이혜정, 2012: 233). 1970-80년대 한국은 산업이 부흥하던 시기로서 이때 많은 한국인들이 교육과 직업을 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였다. 김영모(1985: 162-165)는 1954-60년대 후반까지 약 1만 명 이상이 해외 유학길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여학생들의 유학은 약 30%를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1960년대는 한국인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던 시기이다. 1960년대 이후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해외에 유학길에 올랐으나 그들이 유학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하였는지, 또는 여성으로서의 임파워먼트는 어떻게 발현되었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외로 유학한 한인 여성들에 관하여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들의 해외 이주는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66년도에는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의 파견이 한국과 독일 정부의 협약으로 공식 출발하던 시기였다. 또한, 1971년에는 1,400여 명의 기술자 이민이 브라질로 이어졌다. 그리고 1965년 미국의 새로운 이민법 시행의 영향으로 다수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아울러 1988년에는 해외여행의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1961-1996년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있던 시기이다(법무부, 2015: 26-34). 연구참여자들이 유학을 떠난던 1970-80년대 한국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환경은 독재정치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과 대학생들의 저항, 그리고 재외에서의 한국 민주화를 위한 활동들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당시의 사회적 큰 사건으로는 1967년 동백림사건, 1979년 부마

항쟁, 1980년 5.18 등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토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1960-90년대의 시기에 다수의 한국인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길에 올랐다. 윤인진(2003: 134, 144)은 1970년대 중반부터 캐나다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투자 이민이 늘어났으며, 1990년대에는 조기유학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특히 캐나다 이민 인구는 1974-76년에 9,449명으로 급증한 기록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단지 캐나다의 예가 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해외 유학을 결정하던 1970-80년대에 한인들의 해외 유학과 이주는 양적 팽창의 시기였다. 이처럼 한인들의 해외 이주가 크게 있었으나 이들 재외한인이나 유학한 한인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1990년대를 시작으로 외국 노동자와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유입하였을 때 한국은 다문화 사회의 현실에서 좌충우돌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70-80년대 해외에 유학한 후 결혼하고 실질적 이주자로 살아가면서 생애 동안 그들 스스로 임파워먼트를 발휘한 한인 여성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한 한인 여성에 관한 연구는 나타나지 않으나 독일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에 관한 연구에서 유학한 한인의 활동이 포함되어 나타난다. 이들은 모임을 만들고 거주국에서 이주노동자 귀국 조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5.18이 일어났을 때 이에 항의하기 위한 활동을 재외에서 벌였다(이희영, 2018: 254-276). 이처럼 해외로 유학한 한인 여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고 발전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한 개인의 임파워먼트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한 개인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경험은 이주자로서 선행된 경험이 되므로 한국 다문화 사회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도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정주한 외국 여성들이 존재한다. 유학한 한국 여성들이 거주국에 정주하고, 그들의 삶에 임파워먼트를 실행한 것처럼 이들도 한국에서 그들의 임파워먼트를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유학하여 결혼한 한인 여성들의 선행된 삶의 경험과 임파워먼트는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된 현실에서 다양한 관점을 생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첫째, 1970-80년대 유학한 한인 여성의 생애사는 어떠한가? 둘째 이들의 생애사에 나타난 여성 임파워먼트 형성과정은 어떠한가? 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한인 여성의 유학 및 정주

한국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개인과 이들을 지원한 가족과 사회적 기회의 확장으로, 유학을 실행한 여성들이 있다. 그러나 해외로 유학한 한인 여성에 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극히 일부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먼저 연구된 내용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895년 한국에 외국 문물이 밀려오면서 여성들이 새로운 문물을 대할 기회가 생겼고 더 많은 층위의 여성들이 신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더 많은 교육을 받고자 했던 여성들은 조선 시대 때 여성 고등교육기관이 부재했던 이유로 인해 해외, 특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1920년대 한국인의 미국 유학은 300명이었고 그 가운데 60명이 여성이었다. 또한, 1930년대에 일본으로 유학한 한국인은 7만 8천 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5,400명이 여성 유학생이었다. 이때 미국으로의 유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유학이었으나 일본 유학의 경우 중등 교육기관이 혼재되어 집계되었다(김성은, 2012: 12).

프랑스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30명 정도가 학생 신분으로 프랑스에 입국하였다. 이어 1961년에는 프랑스에 입국한 한인이 170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120명이 학생이었다. 1978년 프랑스 한인 거주자는 1,044명이 되었으며, 이듬해부터 한인 학생 유학은 꾸준히 늘었다. 이 가운데 일부 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프랑스에 잔류하였고 잔류한 학생 가운데 일부 학생은 프랑스인과 결혼하였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6,758명)은 남성(3,507명)보다 두 배정도 많았다(김계르만, 2010: 373). 독일에 이주한 한인 여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과독 간호사에 관련한 연구이며 유학한 여성에 관련한 연구는 1920년대 유학한 최영숙에 관한 연구와 1955-60년 유학한 전해린에 관한 연구 등이 각각 우미영(2006)과 장순란(2003)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러한 기록은 연구참여자의 사후에 남겨진 기록과 대중에게 알려진 기록 등을 통한 연구이기에 유학 당사자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담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여성들의 해외 유학은 역사가 길고 시기에 따라 다수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기록은 공적인 기록이나 연구 등에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관한 연구는 차후 더욱 활성화할 필요를 가진다.

2. 임파워먼트의 의미

1) 임파워먼트의 개념 정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사회적으로 권력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소수 그룹의 무력감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관한 주제를 다룬 사회심리학과 정치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임파워먼트에 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짐머만(Zimmerman, 1995)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내면적 요소는 물론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관한 기술, 사회정치적 환경에 대한 인식, 참여적 행동이 있을 때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용주, 2012: 45 재인용).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관계적 임파워먼트와 동기부여적 임파워먼트로 구분하기도 한다. 관계적 관점의 임파워먼트는 부하 직원에게 권력 또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권화와 구성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동기 부여적 관점에서의 권력은 구성원의 내적 동기부여와 기대감에 맞추어져 있다. 동기부여적 임파워먼트가 관계적 임파워먼트와 구별되는 점은 타인에게 행사하는 권력이 아닌 과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힘(power)이라는 의미에 있다(French & Raven, 1959; Conger & Kanungo, 1988; 조정철, 2015: 29-30 재인용). 동기부여적 임파워먼트의 힘(power)에 관한 관점과 유사하게 스테플스(Staples, 1990)는 임파워먼트에서의 힘이 타인에 의해 부여되는 것(to give) 이라기보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얻어내는 것(to gain)으로 해석하였다. 임파워(empower)는 누군가가 힘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힘을 얻고(to gain), 힘을 발전시키고(to develop),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to enable)으로 자기 자신의 주체적 행동을 통해 성취되는 능동적 의미로 해석하였다(김안나·최승아, 2013: 194 재인용). 또한, 귀터레즈(Guiterrez, 1990)는 임파워먼트가 자기효율과 집단의를 발달시키고 자신을 둘러싼 변화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은성희 외, 2015: 44 재인용). 최명민·김기덕(2013: 109)은 임파워먼트 개념에서 사람은 생각과 목표를 가진 존재이며, 자신의 여건에서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할 의지와 능력을 지닌 존재로 본다고 하였다.

이러한 임파워먼트에 관한 개념들을 종합하면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그가 처한 환경을 통제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능동적 주체자로 행할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힘은 타자를 억압하는 힘이 아닌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극복하거나 통제하는 의미로서의 힘을 말한다. 그러므로 임파워먼트를 가진 개인은 그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변화시킬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여성에게 적용한다면, 여성이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을 극복함으로써 자긍심과

자존감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에 더 나아가 임파워먼트는 여성이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환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김민수(2015: 37)는 1960년 후반 미국에서 흑인과 여성의 인권운동에서 촉발된 임파워먼트 실천이 주류 사회에서 무력감과 억압을 경험하는 주변화 집단인,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학 과정에서 거주국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실질적 이주자가 된 한인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임파워먼트를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켜왔는지를 생애사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

귀테레즈 외(Gutiérrez et al, 1998; 김민수, 2015: 38 재인용)는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무력해진 사람들은 임파워먼트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지킬 힘을 발휘하여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통제하고 사회제도의 변화까지 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파슨스 외(Parsons, 1999; Zimmerman, 1995; Gutiérrez et al., 2006; 이숙진·김안나, 2013: 244 재인용)는 이러한 개인의 임파워먼트를 개인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의 세 가지 차원으로 논의하였다. 서민지(2014: 8)는 개인 임파워먼트가 개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며, 타인에게 자신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사회 임파워먼트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환경에서 독립적이며, 스스로에 대한 통제감을 발휘하기 위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민수(2015: 39)는 임파워먼트를 개인, 집단, 사회·정치로 구분하였다. 개인 수준의 임파워먼트는 생태학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 집단수준의 임파워먼트는 대인관계를 통해 집단 구성원들을 임파워시키고, 나아가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정치 임파워먼트는 정치의식을 가지고 사회 행동에 관한 기술을 증진하여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 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스택키와 몬크맨(Stacki와 Monkman, 2003; 정명희, 2009: 12)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출신 여성들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지적 자율성, 의사결정

자율성, 신체 자율성, 정서 자율성, 경제사회 자율성과 자립, 정치 자율성 등의 6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임파워먼트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킬 주체자라는 것이다.

3) 임파워먼트 형성과정

임파워먼트는 다차원적이고 사회적이며 하나의 과정이라는 특성이 있다. 임파워먼트는 그것이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여러 영역 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다차원적이며 또한, 개인, 그룹, 커뮤니티와 같은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난다. 또한, 임파워먼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과정이다. 임파워먼트의 방식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다차원적이고 사회적이며 하나의 과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기본적인 특성이다(선우은정, 2010: 27). 조혜련(2014: 30)은 임파워먼트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개인으로서 파워 획득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의 획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파워먼트는 억압받는 개인들의 제약에 의한 피해자성(victimhood)보다 행위성(agency)을 강조한다. 즉 행위성은 파워가 외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성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의 임파워먼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의 과정은 중요 의미를 갖는다.

정명희(2009: 13-14)는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임파워먼트 과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임파워먼트 과정은 순차적이거나 단선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인지적 자각이 있으며 이는 임파워먼트를 시작하는 전환점 역할을 한다. 셋째, 개인의 내적 변화, 즉 자기효율성 증가, 자기 비난 감소, 자신감 소유 등과 같은 성장이 있다. 넷째, 개인의 내적 성장을 기반으로 외적 행동 변화단계가 있다. 다섯째, 임파워먼트의 마지막 단계로 자신의 무력감과 직면해서 얻어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과정을 임파워먼트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조혜련(2014: 31)은 임파워먼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과정으로서의 임파워먼트는 첫째, 개인이 자신의 무력감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즉 사회적 소수자집단으로서 개인은 '희망 없음, 절망, 좌절' 안에서 무력감에 머물지 않기 위해 내적 파워를 촉진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이 의식화 단계이며, 자기 비난, 혐오, 죄책감을 줄이는 필수 과정이다. 둘째 주체성의 획득이다. 이를 위해서 동질적인 자조 집단, 공동체, 시민단체 등과 같은 집단이 중요하다. 집단 내에서의 경험 공유는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성찰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임파워먼트 형성과정에 관한 두 연구는 공통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내용을 하나로 요약해보고자 한다. 먼저 임파워먼트는 단선적이지 않으며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두 연구의 결과를 통합하고자 한다. 첫째, 임파워먼트 형성의 첫 번째 요인은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인식 또는 자각이다. 어떠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음에 대한 인식은 변화로의 움직임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인식은 변화하게 되는 시점이 된다. 그리고 인식과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비난이나 죄책감 등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게 된다. 임파워먼트 형성의 두 번째 과정은 삶의 주체성 획득이다. 개인은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기 효율성이 증가하고 내적 성장을 가져온다. 내적 성장은 곧 외면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이전보다 더욱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임파워먼트의 형성으로 나아가게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성찰적 변화이다. 개인은 자신이 가진 무력감이나 약점들을 동질적 집단 등에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에서 성찰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약점이나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이며 타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자신의 무력감이나 약점을 변화할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가 성찰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찰 과정은 개인이 그 자신의 임파워먼트를 형성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임파워먼트 형성과정을 첫째,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자각 둘째, 주체성의 획득 셋째, 성찰적 자세로 요약하였다. 그러므로 1970-80년대 유학하여 거주국에 정주한 한인 여성들의 임파워먼트 형성과정을 세 가지 범주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개요

본 연구는 1970-80년대에 프랑스와 독일로 각각 유학한 한국 여성 2명의 전반적 생애 과정을 생애사 분석법의 하나인 순차적 시간성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에 나타나는 임파워먼트 과정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생애사 연구의 기원은 20세기 초에 시작하여 사회학과 인문학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사적인 삶을 통해 공적인 맥락을 발견하여 이야기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이다(김영순 외, 2018: 217-219).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보다, 이야기의 배경을 이

루는 시간적 맥락에 더 주목한다. 맥락이란 물리적 및 제도적 환경과, 관계된 중요한 타인, 및 사회·문화적 환경을 의미한다. 또한, 생애사 연구의 핵심은 주관적 이야기의 사실적 정확성이 아니라, 내러티브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생애사 연구는 침묵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인간의 진정한 성찰을 표출하게 하며, 자아를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Dhunpath, 2000; 이동성, 2013: 79). 생애사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유학 배경 한인 여성의 임파워먼트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어떻게 제한되거나 촉진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개인이 어떻게 조정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생애사적 인터뷰 자료와 이들에 대한 보도자료 등을 근거하여 먼저 개인의 생애 역사를 순차적 시간성에 따라 요약한 후 임파워먼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를 위한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2016년 10월 한인 국제 결혼 여성들의 모임에서 연구참여자 1을 만나 인터뷰 요청을 하였고 이에 수락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참여자가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여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두고자 하였다. 첫째, 1970-80년대 해외 유학을 스스로 결정한 경우로 하였다. 이는 1970-80년대에 한국 사회가 격변하는 시대에 개인의 임파워먼트가 축소, 또는 확대되는 측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유학 후 거주국에 정주한 경우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거주국에 정주하는 것은 이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한인 여성이 거주국의 삶에서 어떻게 임파워먼트를 형성해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건을 가진 두 연구참여자의 생애사를 통해 임파워먼트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구분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2
연령	70세	65세
거주지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거주기간	45년	35년
직업	번역가	화가/시인, 수필가

연구참여자 1은 1950년에 열두 명의 형제 가운데 열한 번째로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가회동 성당은 연구참여자 1이 서양 문물을 익힌 공간이었다. 한국 사회의 경제 불균등과 위계에 의한 억눌림 등을 경험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학업을 하고자 프랑스로 유학하여 노동 행정학을 공부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1954년 다섯 명의 형제 가운데 장녀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부터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미대 진학을 포기하였고, 이후 1년만 미술을 배우고 오겠다는 생각으로 독일로 유학하였다. 이들 두 연구참여자의 삶에 나타난 임파워먼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하고 후에 정주한 연구참여자들과 2017년 5월과 7월에 각각 서울과 독일에서 인터뷰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2017년 5월 서울에서 인터뷰하였으며, 이후 2020년 1월에 sns를 통해 2차 인터뷰를 하여 자료를 추가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인터뷰 전에 자기 생애 기술지를 작성하여 보내왔으며 2017년 7월에 연구자가 독일 베를린에 갔을 때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전 연구 목적과 연구윤리를 메일과 sns 등을 통해 소개하였고, 면대면 인터뷰 때 연구윤리와 연구 목적 등을 다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은 첫째, 개인의 생애사를 순차적 시간성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생애 사건과 경험에서 임파워먼트가 어떻게 형성되거나 축소되었는지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1970-80년대에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한 한인 여성들의 생애에 발견된 임파워먼트는 어떠한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연구참여자별 생애사를 순차적 시간성에 따라 서술하였고 이후 생애사에 나타난 임파워먼트를 분석하였다.

1. 연구참여자 1의 생애사

연구참여자 1은 중앙청에 다니는 아버지와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 사이에서 12명의 자녀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고 그 가운데 2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에 10명의 자

녀 가운데 막내딸로 자랐다.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청에서 근무하다가 프랑스에 유학하였고 후에 프랑스 남성과 결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는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분류하여 생애 특별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 유년기

(1)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어린아이

“내가 일찍이 초등학교 때 우리 언니가 죽었어요. 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굉장히 죽음에 대한 그 내가 일곱 살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언니가 저세상에 갔는데 아무도 죽음에 대해 얘기를 안해주고 애들한테. 왜 애들 모를거 같으니까 얘기를 안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니까. 어릴 때도 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인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태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죽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화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일생을 많이 이끌어 왔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화두.”

연구참여자 1은 일곱 살 때(1957) 가회동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다. 그리고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과 땅따먹기하고 소꿉장난하며 종일 놀던 평범한 어린아이였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연구참여자 1과 친했던 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때문에 연구참여자 1은 삶과 죽음이라는 화두를 늘 마음에 두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7, 8세 시기에 성당에 다니면서 라틴어를 한국어말로 써서 외우면서 서양문화를 접하였다. 성당은 연구참여자 1이 외국문화를 접하는 장소가 되었다.

(2) 선생님이 되고 싶지는 않았음

“선생이 과외를 해. 직접. 그러니까 선생들이 자기가 과외를 시키는 게 위주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은 애가 과외수업 했던게 학교까지 와. 그래서 개네들을 시켜. 그런거를 보고 어린애들도 다 알거든. 재네들 과외하는구나. 그래서 막 악을악을 쓰고 저요저요 해도 안시켜.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 이미 교육에 대한 불평등. 난 그래서 선생이 되겠다는 꿈을 아예 버렸어요. 나는 선생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 아름답다 이런... 인상을 못받았어요.”

연구참여자 1은 1957년 1학년이 되었고 당시 같은 반에 윤보선 대통령(1960-1962 재임)의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를 들여 중학교 입시를 위해 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때 과외를 하던 분이 학교 선생님이었고 선생님은 그 아이들 위

주로 수업을 했다. 연구참여자는 과외받는 아이들에게 먼저 교육의 기회가 가고 그 아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 즉 교육의 불평등과 선생님의 불합리함을 인지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장래 희망 가운데 선생님은 없었다고 하였다.

(3) 묵상-나와의 조용한 대화

“내가 계성여고, 여중을 다녔는데 거기가 대한민국 서양문화의 중심이잖아요. 딱 들어가면은 성당의 엄숙함. 성당에서는 옆으로 학교에 들어가는데 성당에 들어가면서 이런 제대라고 해. 제대를 보고 어린애가 조용히 침잠해보는거. 묵상해보는거. 그게 나는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 같애. 나와의 조용한 대화를 하는거. 하느님을 내가 본적도 없지만, 제대 앞에서 음. 내가 왜 공부를 해야되고 무얼 해야되고. 그런건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학교 가기전에 잠깐 들리고 학교에서 나가면서 잠깐 들리고 그게 내 영성 생활에 신앙생활에 힘이 되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가톨릭의 절대성이라고 해야되나.. 그렇게 있다는 거를 체험을 한거죠.”

연구참여자 1은 초등학교 때 성당에서 영세(세례)한 후 중고등학교 때는 가톨릭 재단이 지원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가톨릭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연구참여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 옆의 성당을 통해 그리고 성당의 분위기 안에서 자신과 대화하고 조용히 침잠하는 과정을 가졌다. 그러면서 신앙으로 자신을 가다듬어 갔다.

(4) 어머니의 가르침

“우리 어머니가 그래. 항상 양심뿔을 지켜라. 누가 보든, 안보든.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남편하고 살 때도 문화가 달라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게 부모님한테서 배웠어요. 그게 항상 귀에 쫄게 가르치시더라고. 사람을 근중하게 생각하라.”

연구참여자 1의 어머니는 존댓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내딸에게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다. 한번은 연구참여자 1이 시험이라서 일찍 끝나 집으로 왔는데 낯선 사람하고 어머니가 식사하고 있었다. 그분이 가시고 난 후 누구인지 물었을 때 어머니는 ‘밥 한술 얻러 온 분인데 어차피 나도 한 끼 먹어야 되어서 방에 같이 모셨다’라고 하였다. 이 경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머니의 모범으로 연구참여자 1의 기억에 남았다. 가르치려는 모범이 아니라 그것은 어머니의 삶 자체였다. 어머니의 모범은 연구참여자 1이 프랑스에 이주하여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연구참여자 1에게 삶에 힘이 되

었다. 인간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함에 대한 가치관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정체성 즉, 외부의 압력에 대한 내적 방어막이 되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가르침은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외적 환경을 감당하는 임파워먼트의 요인이 되었다.

2) 청년기

(1) 수녀원의 제의

“일단 대학을 들어가니까. 계성학교 수녀원에서 총장님이 나를 부르더니 너 공부하는거 좋아하고 착해보이는데 너 수녀원에 들어오면 우리가 너를 대학 등록금 다 주고 수녀가 되면 우리가 프랑스 유학도 보내줘. 나 그렇게 메이는 거 싫다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어린나이에 정하느냐?”

연구참여자 1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내야 하는 수업료를 제 때에 내지 못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름이 호명되고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복도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러한 것은 당하는 학생에게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것이며 수업료를 가져오라는 압력인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학교 병설 유치원 보조 선생님을 하여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열심히 공부하여 이화여대에 합격한 후 고등학교의 재단이었던 수녀원 측에서 연구참여자 1에게 수녀원에 들어오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수업료를 못 냈을 때 교실에서 쫓아낸 것과 대학에 합격한 후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수녀원의 태도가 같지 않다고 여겼다. 또한, 먼저 수녀가 되었다가 그만둔 친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수녀원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거절의 가장 주된 이유는 수녀가 되고 안 되고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어야지 타협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자신의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 미래의 노동부 장관

“그 프로젝트나 뭐나 참 내 꿈에 맞고 주위에서는 다 나한테 야 이제 너는 장관감이다. 너 이대 과수석이지 수석졸업했지 대학에서... 그리고 공직에 있지.. 넌 앞으로 노동부 장관이 될 감이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경사가 났어. 그런데 나는 거기서 썩고 있는거야.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피하지?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아후~그거 알아요? 짓눌루는거?”

연구참여자는 대학에 의해 노동청 별정직에 추천되었다. 학교의 추천이니 채용되는 줄 알았으나 다른 대학교에서 추천받아 온 학생들과 함께 역사, 영어, 행정 등에 관한 시험을 봐야 했다. 연구참여자는 시험을 치른 후 합격하여 채용되었고 청운의 꿈을 안고 노동청에 출근하였다. 주위에서는 미래의 노동부 장관감이라고 축하해 주었고 일도 적성에 맞았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 사회는 연구참여자가 느끼기에 엄격한 위계체계가 세워져 있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썩고 있다고 느꼈다.

(3) 내 삶의 주인은 나

“미스변 거기앉으면 안돼. 깜짝놀랐어. 지네들은 앉으면서. 커피마시며 앉으니까. 나도 엘리트니까. 특채로 온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앉는 거지. 그런데 여자라고. 새파랗게 젊어...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나같은 여자는 급사 있지, 미쓰 김 저거 가져와, 이렇게 심부름 하는 급사, 급사 수준으로 날 생각하는거야. 공무원 조직사회가 충격이었어. 이럴려고 내가 진짜 그 비싼 대학 등록금과 수업료를 내고 대학 생활을 했나... 한국남자들의 그 난 아주 질렸어. 어후 난... 소화를 못시키겠어. 그러니 조직 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 내가 가능한 여기를 떠나 되겠다....(중략). 공무원 생활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딱 던지고 나오고. 그때만 해도 상관한테 대들고 이럴 수가 없더라구요. 그럴 때는 도망을 가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 있으면 내가 비겁해지고.”

연구참여자 1은 공무원 생활에서 몇 가지 적응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중의 하나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무시함이었다. 연구참여자 1은 노동청 별정직에 채용될 때 시험을 통과하여 당당히 입사한 엘리트라고 스스로 자부했다. 그러나 동료나 상사는 연구참여자 1을 급사로 취급하였다. 상사가 위계에 의해 목소리를 높이면 다들 굽신하는 모습에 상사가 더욱 안하무인이었던 것을 보면서 연구참여자 1은 그것이 상스럽다고 느꼈다. 더구나 공관에 있을 때 비서관이 앉고 그 옆에 사무관이 앉고 연구참여자 1은 일본에서 온 엔지니어와 같이 일하였기 때문에 그 옆에 앉았는데 그것에 대해 그 일본에서 온 엔지니어한테 면박을 주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1은 당황했고 왜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가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상사에게 따질 수도 없었다. 그러한 일이 쌓이면서 연구참여자 1이 생각한 것은 피하는 것이었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하여 선택이 요구되는 상태가 되었다. 사회는 여성들이 그들의 인간관계, 결혼, 자녀 양육, 업무 등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을 여성에게 지움으로써 여성의 자기 비난 행동을 조장한다. 이때 여성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인식을 하는 것은 자기 비난으로부터 탈출을 제공한다. 또한, 여성이 억압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여성 자신의

저항은 임파워먼트 요소가 된다(GlenMaye, 1998: 곽지영, 2005: 14).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이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면서는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은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겠다. 그리고 더는 비겁해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입사 1년 뒤에 사표를 냈다.

(4) 날고 싶은 꿈

“참 인간적으로 외롭더라고 사실. 연애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내 뜻대로... 내 욕심이 많아서. 노동청도 그걸 감사하게, 학교생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날개를 달고 높게 날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한 번 그렇게 충격받으면은 헤어나지를 못했어 내가. 그런데도 꼭 참고 있었다는게 큰 경력이 된거야. 공직에 있었다는게 이게 결정적인 거였어요. 나한테. 유학과 장학금을 받는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한것이지요. 장학금도 좋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를 외국인들이 다니는 고급 행정 대학원으로 들어간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나의 경력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데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그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간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공무원 생활이 힘들었지만 그게 그렇게 나의 인생에 굉장히 결정적인 경력이 된거예요.”

연구참여자 1은 초등학교 때 이미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렸고 날개를 크게 펼치고 높게 날고 싶었다. 그리하여 고위 공무원이 되고 큰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날개가 꺾이고 보니 힘을 내지 못했다. 노동청 별정직을 그만두고 들어간 직장은 대학 부속 고등학교 붙어 선생님이었다. 학교에는 젊은 여선생님을 알아보려는 능글맞은 고등학생들이 있었지만, 더욱 힘들었던 것은 날고 싶은 이상과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느낀 인간적인 무력감이었다. 그때 그래도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썩어가는 자신을 눌러 앉혀서 꼭 참아냈던 1년이라는 경력은 연구참여자가 프랑스에 장학금을 받으며 유학하는데 결정적인 경력으로 작용하였다.

(5) 외로움을 느낌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동계를 위해서... 꿈이 많았었어요. 사실. 힘들게 대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버스 안내하는 애 있잖아요? 콩나물 시루처럼 밀어가지고 막썬서 넣고 오라이~!! 그리고 개는 죽지않으려고 이거 잡고(버스 문 난간 손잡이) 매달리고. 그거를 나는 무심히 못봤어요. 대한민국에 같이 태어나서 어떻게 배움의 기회도 없고 진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래서 내가 노동행정을 했지. 불문학을 한게 아니라. 그랬더니 내 친구들

이 어우 애 불문과 들어가서 무슨 노동이고 뭐니... 그래서 내가 외로왔어. 내 뜻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노동계를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은 노동청 별정직을 그만두면서 한번 좌절되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냈던 것이 프랑스 유학이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불문학을 공부하지 않고 노동 행정학을 공부하였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국의 열악한 노동현장을 개선하고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새로운 투지로 공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참여자 1의 뜻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었기에 혼자 나아가야 하는 외로움이 있었다. 이 외로움은 유학 생활의 외로움과 함께 연구참여자 1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이 되었다.

(6) 내적 갈등-몰아치는 서구문화의 파도

“예를 들면 여기 대학 식당에서도 아시아 사람들이 활발하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니까 자기네 가치관이 세계적인줄 알고 함부로 대하는 거를.. 하(탄식) ‘아냐 우린 안 그래. 그러면 거긴 거기고 여기는 여기 방식으로 살아야돼.’ 강요를 하는거예요. 심지어 대학 식당에서도 나를 바로 할 줄 알아야 하고,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너 좋아. 나 좋아. 그럼 그날 가서 자도 되는 거야. 남녀관계에서, 우리는 안 그래. 정조를 지켜야 해. 내가 받은 교육대로. 그러면 막 깔깔거리고 웃어.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도 보면 한국에서는 안 그랬었는데 여기 오자마자 탁 담배 입에 물고 여기 사람들처럼. 여기에 즉시 동화가 되느냐. 자기 가치를 지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와서 정체성과의 투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성이 아주 매일 연속적이에요. 내가 소위 유학이라고 왔는데 내가 가졌던 이 가치관이 옳은 것인가? 정말 애내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면에서. 거기에서 내가 휘말려 가야 하는가?”

연구참여자 1은 한국대학에서 수업을 통해 서구문화의 우수함에 대해 넘치게 들었으며, 프랑스 문화원을 통해 접한 프랑스 문화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에 유학갔을 때 프랑스 사람들도 자신이 프랑스를 알듯이 한국을 알 것이라고 여겼지만, 프랑스는 한국을 너무나 몰랐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거의 문맹 수준이었다. 그랬기에 매일 매 순간 만나는 거주국 문화의 파도는 연구참여자의 가치관을 흔들었다. 연구참여자 1은 당시 자신의 가치관이 고루하고 버려야 할 것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투쟁을 단순히 정체성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차원이었어야 했다고 회상한다. 연구참여자 1은 프랑스의 거친 문화의 파고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질문하고 매 순간 사유하는 과정뿐 아니라 어머니와 매주 장문의 편지

를 주고받으며 견뎌냈다. 거주국 문화의 파도로 인한 내적 충돌은 연구참여자가 듣는 수업과 학문에도 나타났다.

“장자크 룩소 강의를 들으러 갔거든요. 룩소의 자연관, 교육관, 이렇게 한국에서 내가 다 들은거예요. 공자도 배웠고 노자도 배웠고 그래서 내가 계속 룩소의 강의를 듣는데 어? 내가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애들을 자연과 더불어서 키워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어 난 당신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룩소가 아니라 동양 사상을 듣는 것 같다. 룩소가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발표하는 사람이 시치미를 딱 떼는거야. 아니 전혀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그런데 볼테르는 공자를 너무 흠모를 해가지고 매일 공자를 향해서. 논어의 가르침에 절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 룩소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학자들도 양심적이지 못한 게 많았어. 맞다. 니네들이 동양사상이 굉장히 앞서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그때 영향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하고 자기들이 순수 창작한 것처럼. 그래서 불교 공부도 다시 하고, 여기 와서 공자 맹자 동양사상을 다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불교에 대한, 유교에 관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연구참여자 1은 한국에서 논어와 노자, 유교 등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랐다. 그리고 프랑스에 유학했을 때 서양 철학 시간에 접한 내용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들은 내용과 같은 내용이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1은 “당신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동양사상을 듣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그 의견은 프랑스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자신이 동양 사상을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해 왔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불교, 공자, 맹자, 유교 등 동양 사상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동양인,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과정이며 정명희(2009)가 말한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자각이고 임파워먼트 형성과정이다. 동양의 학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으나 그런 자신이 서양 철학의 빈곤함에 대응하지 못함을 인식하였기에 동양의 학문을 다시 공부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연구참여자의 임파워먼트가 발현되고 강화되는 과정이 되었다.

3) 장년기

(1) 시몬느 베이유 센터를 제안받음

“여자 교수님이 나한테 너 나하고 같이 살지 않을래? 라고 하셨는데, 그때 지도교수의 집은 고성(古城)이었어요. 이미 다른 연구자들이 있었고 연구자로서 함께 레지던트로 살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죠. 그러면서 시몬느베이유 센터도 하고, 동양과 서양, 철학의 사상들을 나누고, 동양과 교류를 하는 센터를 운영하세. 나의 지도교수

가 그런 제안을 하는데 고민을 했었지. 내가 나이도 어리고 세상 경험도 적고 학문도 짧고 그분은 나를 크게 본 것 같은데 저는 위축이 됐었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개인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거절했더니 실망하신 것 같았죠. 다비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고독을 사랑해야 된다고, 고독을 친구로 삼으라고’ 너무 큰 화두를 주신 거예요. 그때 내 나이가 30대 전이었고 참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되겠더라고. 그런 분이 그런 제안을 했었다는게 나한테는 영광이었고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때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렸어. 이런 좋은 제안을 받았었지.”

연구참여자 1은 프랑스에서 시몬느베이유를 공부했고 지도교수로부터 시몬느베이유 센터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1의 지도교수는 Marie-Madeleine Davy이며, 철학자이고, 중세 신학 연구의 대가이다(연구참여자 1의 설명 인용). 다비 교수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고성에는 연구생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며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지도교수인 다비교수가 동양에서 와서 노동 행정을 공부하는 연구참여자 1에게 관심을 두었고 자신에게 큰 기대를 하였음을 회고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1은 이 일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결국 반려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야 한다. 시몬느 베이유도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 나는 동양인으로서 프랑스에 와서 문화적인 차이의 그 고독감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내멋대로 한번 살아야겠다. 내가 당신(시몬느 베이유)을 좋아하고 하지만 내가 당신을 똑같이 모방은 못해. 이러면서 내가 인생을 사는거야. 그 센터를 내가 유지를 하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릇이 더 컸으면 그런거 해서 무슨 센터장으로서 국제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나는 소시민이야. 그냥 그렇게. 결국, 이렇게 가정을 갖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손주가 있으니까 소시민적으로 만족해요. 나는 이렇게 필요했어.”

연구참여자 1은 지도교수가 한 제안이 자신에게 좋은 것임을 이해하였고 당시 그것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면서 교수님처럼 자신을 감리하고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은 자신의 기질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그 제안을 거절하였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관한 주도성을 가졌다. 개인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기술개발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 자원에의 접근 등의 능력을 향상하여 자기 옹호,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Staples, 1990; 광지영, 2005: 11). 연구참여자 1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기회를 반려했던 것은, 자신의 삶에 맞는 조정이었고 현재의 삶이 자신에게 맞는 삶이었다고 말한다.

(2) 남편과 만남 그리고 결혼

“그때 이대 은사님이 외교관 부인으로 와있었어.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지. 이런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부모처럼. 그래서 한 세 번 그분 집에 외교관 집인데 초대해서 이야기 저 얘기 하더니 어 이런 사람이면 결혼을 하라고. 나보고. 그래서 아 내가 믿는 은사이기 때문에 결혼해도 되겠다. 아무래도 외국사람이라. 그래도 인연을 맺어줘서. 금년이 내가 결혼한지가 40주년이에요. 다들 그러더라구요. 박물관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한불가정도 얼마나 많이 깨지는데.”

연구참여자가 다니던 중·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함께 프랑스어를 공부하기로 하였고 그 그룹 중 한 명인 반장이 현재 연구참여자의 남편을 찾아서 데려왔다. 그렇게 시작한 프랑스어 스테디는 3개월을 하고 그만두었다. 프랑스어가 어렵기도 했지만, 학교 공부의 양이 많았기 때문이었고 연구참여자만 독학으로 프랑스어를 계속 공부했다. 그리고 프랑스에 유학했을 때 연구참여자는 그 스테디 과외 선생님을 찾아보았다. 그 과외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던 곳을 찾아갔더니 부모님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가 엽서를 썼는데 그 엽서가 부모님 집으로 보내졌으므로 1년 뒤에 전달되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만난 남편은 이미 한국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은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때 대학교 은사님이 프랑스에 외교관 부인으로 있었기에 대학교 은사님을 부모님처럼 여겨, 남편을 선보였고 그분으로부터, 결혼해도 되겠다는 말을 들은 후 결혼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20년에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다. 요즘에는 한불가정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박물관에 가야한다는 농담을 듣기도 한다.

(3) 국제결혼 가정에서의 다양성을 이해함

“부부생활이 한창 어려웠을 때, 마침 가톨릭에서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편지를 쓰는 노트가 있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너의 표현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던가 이런 거를 노트에 썼어요. 또 상대방도 그렇게. 남편과 내가 서로 쓴 것을 교환하는 거야. 나는 물론 불어로 쓰지. 불어로 쓰면 저 사람도 불어로 쓰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어우 진심으로 서로 사랑을 하는구나. 그런데 표현방법이 이렇게 달랐구나. 그래서 이 노트를 자주 교환하던 때가 있었어요.”

국제결혼가정의 특성은 두 개 이상 문화들의 조우이다. 이는 문화 다양성의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문화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문화의 다양한 장에서 부부인 두 당사자는 상당한 지혜를 모아야 할 처지에 놓인다. 일반 가정의 부부간, 갈등에서는 주로 성격 차이를 우선으로 두지만,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성격 차이 이외에 문화 차이와 언어 수준의 차이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박옥자·여경환, 2016: 152). 언어를 통한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갈등의 이유가 되지만 의사소통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된다. 국제결혼가정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의 중심에 거주국 언어가 있다. 한국의 결혼 이주 외국 여성에게 한국어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가정을 튼튼히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1은 남편과 갈등이 있었을 때 기꺼이 외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들여 그들 부부에게 적용했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4) 하차한 박사과정

“내가 논문을 쓰려니까 한계가 있고,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한계가 느껴지고, 지도하는 교수도 그래. 내가 너를 지도하는데 한국이라는 상황을 내가 전혀 모른다. 논문 주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 해야될지를 솔직히 내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때 몸이 짹짹 마르더라 고요. 박사 할 때.”

연구참여자 1은 남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 박사과정을 하였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에 다니는 일은 버거운 일이었다. 연구참여자 1은 시몬느 베이유를 존경하였기에 그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썼으나 박사 논문을 쓰는 것에 한계를 느꼈고 지도교수 또한, 연구참여자 1의 주제와 앞으로의 진로를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가졌기에 수료만 하고 중단하였다. 체중이 현저히 줄어들 만큼 고생되었던 시간이었다.

(5) 한국 소설을 프랑스어로 번역함

“그러면서 한국을 다시 배우고, 한국 역사를 다시 공부하면서 한국 근대사 대하소설들을 남편과 함께 번역했어요.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그 번역소설은 한국의 재발견으로 받아들여졌고, 프랑스 정부소속 불어권 국제기구인 프랑코포니(Francophonie)에서 황금 언어상을 심사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상했지요.”

박사 논문을 하차할 때 즈음 연구참여자에게 번역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가려는 가톨릭 수도원들이 그들의 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고자 하였다.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프랑스의 수도원으로 입회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번역을 부탁 받았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한국의 소설가와도 연결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이 유학하면서 가졌던 목표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1은 결혼을 하였고 박사과정도 중도 하차하였기에 그 일은 이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연구참여자의 마음에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었기에 OOO의 소설을 만났을 때 이를 번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번역은 남편과 함께했고 당시 프랑스 사회에 한국을 다시 알리는 큰 이슈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한국을 너무 모르는 프랑스 사회에 남편과 함께 한국 소설을 번역하여 내놓음으로써 한국을 알렸다. 또한, 한국의 역사에서 잊혀졌거나 주목받지 못했던 민초들의 삶을 대변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번역했다. 연구참여자 1은 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현장에서 일하려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소설 번역을 통해 주변화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을 행하였다.

4) 노년기

(1) 한국인 정체성

“우리들에게는 어차피 한국인의 DNA가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 하고 모르는 것 하고는 차이가 커요. 얼굴 지압받고 화려한 것 같아도 빈곤함을 느껴. 빈곤함을 나 스스로가 채우는 거지, 거기 채우러 가는 것은 아니야. 빈곤함을 확인을 하러가...(중략).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런 갈등을, 늘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세대가 있거든요? 우리 2세대들이 자기 엄마가 한국인이다. 정신적인 유산, 뿌리를 알고 나도 알고 우리 후세를 알아야 해요.”

연구참여자 1은 현재 한국 정부에서 재외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모임을 할 때 본인과 연관되었거나 관심이 있는 모임에 참여한다. 그러한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채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빈곤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국제결혼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이 걸로 보기에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주름을 펴고 살지라도 마음과 정신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 없는 내적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빈곤함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에 연결하고 한국을 배우는 것은 그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빈곤함을 확

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자신을 찾기 위한 행위로 이해된다. 그리고 채우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 1은 프랑스에 있는 한인 어머니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에 대해 정신적 유산으로 자녀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하였다. 어머니 자신부터 그러한 정체성에 대하여 갈증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증이 없으면 2세대들의 정체성 갈등으로 이어지고, 정체성 갈등으로 인해 2세대들이 그들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기든스(1991)는 정체성을 기초적 신뢰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는 기초적 신뢰를 아이와 그를 돌보는 보호자로 비유하였다. 아이가 정상적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보이는 신뢰는 실존적 불안에 대한 일종의 감정적 예방접종이며 보호막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초적 신뢰는 정상적인 개인들이 일상 생활사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주변에 가져다 놓은 방어껍질 또는 보호 고치의 감정적 지주라고 하였다 (Giddens, 1991; 권기돈 역, 1997: 92-95). 즉, 기초적 신뢰는 정체성의 조건이며,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막이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의 확립은 외부로부터의 위해 요인에 대한 보호 고치 역할을 하며 그것은 기초적 신뢰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의 기저에는 기든스가 말하는 기초적 신뢰가 있다. 이주자로서 한인 여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은 차별과 편견이라는 위해 요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보호 고치가 된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갈증이 어머니 자신에게 없고 2세대들의 정체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2세대들을 이해하거나 도울 수 없다는 메시지이다.

(2) 거주국에서의 문화적응

“한번은 중국 사람을 무시하며 나를 중국 사람 취급을 하면서 니네들이 너무 많이 와서 프랑스 경제가 나빠지고 있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너처럼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고 나도 프랑스에 세금 내고 있어. 그러니 그런 바보같은 소리 하지마. 기세를 가지고 했지...(중략).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몸 건드리는 거를 아주 싫어해. 실쩍 부딪쳐도 일부러 건드린줄 알고.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니까 씩 웃거든. 그러면 애네들은 미칠라그래. 내 몸을 건드리고 씩 웃어? 이건 뭐하는거지? 여자든 남자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런 문화적 충돌이 많았어요. 사실은.”

연구참여자 1은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매 순간 다양한 차별 행태와 의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체험하며 살아왔다. 혼한 예로 해외 이주자에 의해 프랑스인인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 연구참여자 1은 그러한 의식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

했다. 동양과 서양은 문화와 풍습, 생활 습관, 사고방식, 표현방식에서도 극명하게 다른 형태로 살아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주하고 정주한 연구참여자 1은 양쪽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프랑스 사회가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살아왔던 관념으로 인해 우월의식을 극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적인 것 이외의 것을 거부하는 스노비즘(snobbism)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뻘속에까지 있어요. 그 우월한 의식이. 그거를 애네들이 극복을 하는데 힘들어해. 이 프랑스의 파리지앵들 돈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스nob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아니면은 낮설어 하는거야. 굉장히 스노비즘(snobbism)한거 있지? 우리는 서양꺼 좋아하고 되게 ...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한국꺼는 프랑스적인 것이 아니라서 안되겠다... 이렇게 있는 거야.”

스노비즘과 같은 태도는 자기 것이 우월하다는 감정, 태도, 등으로 인해 진정으로 타자의 것에 대해 이해하거나 수용할 의사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연구참여자 1은 프랑스의 차별이나 편견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그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가르치고, 다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바보 멧덩구리가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외국 이주민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갑질하고 그런거 보면 아이고 내가 당한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구나...”

연구참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주를 받아들이는 원주민들의 의식이 스노비즘과 같은 지적 허영에 묶여있지 않아야 함에 대한 것이며, 결국, 한국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타자에 대하여 존중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프랑스에서 그러한 차별과 편견을 받았었기에 편견을 가치는 프랑스나 편견의 대상이 되는 자신과 같은 이주자 모두에게 아무런 좋은 영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어리석음을 한국이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프랑스보다 더 성숙하게 행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3) 이주의 영향—나 자신의 삶

“왜냐하면 내가 막내딸로 태어났잖아요. 그 윗 형제들에 의한 소위 갑질이... 있어요. 나는 어리니까 나는 무조건 말할자격도 없고. 윗사람들이 결정 다 해버리고 그

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주 그게 그래서 그 위 형제들에 대한 갑질이 그게 나를 귀엽게 보기는 하지만 나는 막내 동생 이기 때문에 부러먹는. 쉽게 부러먹는 일꾼이야. 그런 가족관계가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다고 지금 생각하는거지. 그때는(그런 생각도 못했음). 여기서 새로 시작하니까 재미있더라. 재미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모임에 가도 그냥 자유로와.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거쳤어. 한국의 복잡한 가족관계도 다 넘어섰고. 그리고 학교관계. 내가 그랬잖아. 돈이 없어서 교실에서 쫓겨나는 그런게 아오~ 너무 힘들었어. 사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한국에서는. 그런거.”

연구참여자 1은 10명 형제의 막내로 자랐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귀여움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치가 없었다. 당시에는 그것의 불편함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으나 이주 후 자신의 삶에서 주체성을 획득한 후 한국 가족관계에서의 위계와 억압이 불합리함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자유로움을 가졌다.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1은 거주국에서 결혼하여 사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있었고 자신의 가족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시집과의 관계 등을 통해 힘든 것을 극복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갇히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표출하고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는 삶을 살아왔으며, 연구참여자 1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교실에서 쫓겨나가거나 가족의 일원이지만 자신의 목소리와 의견은 구성원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었던 한계를 느꼈다. 그러한 것이 힘이 들었지만, 이제는 다 넘어선 일이다. 연구참여자 1의 현재 상태는 정명희(2009)의 임파워먼트 형성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긍정적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됨으로써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도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2. 연구참여자 2의 생애사

연구참여자 2는 경기도에서 다섯 명의 형제 가운데 맏이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조각가이며 도자기 작가였으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미술 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연구참여자 2의 아버지는 19세 때 평양에서 월남하였으며 아버지의 통제가 엄격하여 자라는 동안 아버지와 많은 갈등을 가졌다.

1) 유년기

(1) 딸이 귀한 집

“제가 첫째이고 우리 집안에는 딸들이 없었대요. 거의 아들들만 있었는데 이제 딸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귀중한 딸이다.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여동생만 귀여워하니까 오빠들이 장난을 친거 같아요. 이걸 먹어봐라 그러면서 못 먹는 것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 그게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 몰라가지고 장난하다가 죽었다 그러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5대째 처음 살아있는 딸인거죠. 이 가문에. 그러니까 콘트롤이 심한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아버지 콘트롤 속에 살아서 그런지 제가 저를 콘트롤해요.....(중략). 한국은 두들겨라(실제로 타자를 두드리심) 그러면 문은 열린다. 안열려요. 한국은.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는 두들겨라(실제로 타자를 또 두드리심) 그러면 문은 열린다. 열려요. 여기는.”

연구참여자 2의 아버지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남자 형제들의 부주의로 못 먹는 것을 먹여 여동생이 생명을 잃었다. 그 경험으로 인해 5대에 처음 살아있는 딸인 연구참여자 2는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자랐다. 아버지의 통제와 구속을 통한 가르침은 연구참여자 2에게 어렸을 때는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이주했을 때는 거주국에서 자신을 지탱해가는 힘이 되기도 했다. 아버지가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으면서도 자신의 자유를 구속했던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젊은 날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구속된 가르침에 스스로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한다. 연구참여자 2는 한국을 기억할 때 아버지의 가르침처럼 엄격하고 통제된 상태로 기억한다. 그리하여 한국은 두드러도 열리지 않는 사회로 인식하지만 이주하여 부모와 사회의 통제를 벗어났던 독일 사회는 두드리면 열리는 사회로 인식한다.

(2) 화가의 꿈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특별상 우수상, 전국대회 사생대회에서는 상을 받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상을 받으면 그때 애들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거 같아요. 보편은. 제가 받았을 때 어우 이거 능력이 있구나. 그럼 나는 그림을 이쪽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미 그림을 그릴 것을 계획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의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했죠.”

연구참여자 2의 부모님은 한국전쟁 때 평양에서 월남하였으나 분단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가지 못하였다. 이에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2의 할아버지는

도자기를 굽고 조각을 하였는데 할아버지의 그림 그리기는 친구들은 할아버지에게 “이번에 그림 그리면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으나 할아버지가 돌려받은 것에 대한 기억이 아버지에게는 없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2의 아버지는 그림쟁이들은 게으르고 가난하며 능력이 없다는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2의 아버지는 자신의 자식들은 절대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진로를 정한 연구참여자 2와 부딪치는 것이 많았다.

연구참여자 2는 화가가 되고 싶었으나 아버지는 딸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다. 연구참여자 2는 이를 두고 아버지와 자신은 세상을 보는 각도가 달랐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안국동에서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한 학년에 10개의 반이 있었고 그 가운데 1반이 우수반으로 학교에서 따로 관리하는 반이었다. 연구참여자 2는 미대에 진학하기를 바랐지만, 우수반에 편입되어 있었고 학교 선생님들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미대보다는 다른 학과에 진학하게 하려고 계획했다. 연구참여자 2의 아버지는 의대를 가든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돼라, 그러면 무난하고 생활하는데 힘들지 않다. 라는 권고를 주었다.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는 자신은 “사회에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맞섰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고루한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반대로 미대에 진학하지 못했고 조각과 유사한 고려대학교 치기공과에 입학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캔버스 하나를 사더라도 왜 너는 그림을 그리냐는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어야 하였기에 과외를 하여 캔버스를 사고는 했다. 그러나 그것도 아버지는 싫어했다. 한편, 연구참여자 2의 집 통행 금지 시간은 밤 10시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는 항상 자정에 귀가했고 열쇠가 없었던 연구참여자 2는 담을 넘어 들어갔다. 어떤 날은 순찰하던 경찰이 가방을 빼주면서 도와주기도 했다. 담을 넘어 뒤뜰로 가서 동생을 부르면 동생이 문을 열어주었다. 연구참여자 2가 유학한 후 동생은 1년 가까이 12시가 되면 노크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어 언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3) 아버지와의 갈등

“제가 통제된 교육을 받았잖아요. 집에서 그렇고 워낙 숨을 못 쉬게 하는게 있죠. 몇시부터 몇시까지 뭐하고 오죽하면 대학교 때 우리 선배들이 큰 행사가 있는데 그때 니가 질문을 해야돼. 어떤 질문을 해야되고 대답을 해야되고 그걸 준비를 다 했는데 제가 집에 원래는 10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대화하고 만나서 뭘 하느라고 10시가 넘었어요. 집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행사를 가야되는데 못가게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못가면은 우리 학교에서 난리가 난다고. 아버지가 내 인생의 길을 막는다. 가야된다.’ 내가 학교를 안가겠다고

그랬는데도 못간거예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찍혔어요. 이런 집안 사정을 모른거지요. 그게 제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 결정적인 찬스인 순간인데. 나는 절대로 아버지가 가졌던 그런 사고로, 그 형태로 자식을 안키우겠다.”

아버지의 통제는 연구참여자 2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아버지의 통제는 점점 더 강해졌다. 아버지는 연구참여자 2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해 부녀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당시 연구참여자 2는 대학에서 어떠한 중요한 인터뷰를 하도록 지명되었고 연습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했고 선배들에게 연결할 수도 없었으며, 갑자기 연구참여자 2 대신 담당할 사람도 없었다. 연구참여자 2는 어떻게든 학교에 가고자 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다. 아무 연락 없이 일을 망친 연구참여자 2로 인해 선배들은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연구참여자 2는 아버지가 이상하고 쓸데없이 엄하게 자신을 통제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통제는 오히려 연구참여자 2가 더욱 자신의 길로만 가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2) 청년기

(1) 그림을 시작함

“이제 그분이 아 참 유감이다. 재능도 좋고. 그답에 우리가 항상 석고, 깁스라고 하는데 석고로 이도 만들고 모형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구요. 3차원의 조각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도 참 잘 가르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저를 추천을 했고 제가 이제 됐고 그러면서 졸업을 하면서 저는 그쪽길 보다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대로 가겠다 해서 그림을 시작하게 된거죠. 그러면서 그림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했죠.”

연구참여자 2가 치기공과 공부를 2년 하고 거의 끝나갈 즈음에 서울대 교수님이 전문 대학 재료과에 가서 강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다. 이에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을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대답하며 그 제안을 거절하였고 그림을 시작했다. 연구참여자 2는 그림을 반대했던 아버지를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하여 다른 방향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고 오직 그림만 생각했다. 그림을 그리는 길을 택한 후 연구참여자 2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렇지만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갔고, 한편으로는 화가들에게 그림을 배우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이중섭 화가의 조카를 통해 원로 화가들을 만났고 그들과 친해지면서 화가들에게 대학에 가서 그림을 더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그때 화가들은 “홍대 미대를 가야 배울 것 없어. 그냥 하고 우리랑 만나면서 그림 그리면서 토

론하고 우리가 너의 스승이다 그렇게 된거죠.” 그러나 연구참여자 2는 미대 졸업자라는 타이틀을 향한 마음을 접지 못했다.

(2) 독일 유학 결심

“다들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나는 목표 없이 하니까 목표를 세워야겠다. 그때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서 화풍이 어떤가 1년만, 공부하러 1년만 갔다가 오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게 된거죠.”

어느 날 고교동창이 미국으로 유학 갈 생각으로 연구참여자2에게 이야기했고 연구참여자 2는 미국보다는 독일로 가도록 설득했다. 이에 친구는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 문화원에 등록하면서 연구참여자2에게 같이 다니자고 하여 독일 문화원에 함께 다니게 되었다. 그리하여 3, 4개월 후 독일 문화원에서 시험을 봤다. 당시에는 그렇게 시험을 본 후 합격하면 6개월 더 공부하여 또 시험을 보고 합격했을 때 비로소 외국에 나갈 자격이 생겼다고 한다. 독일 문화원에서의 시험에서 연구참여자 2와 친구는 똑같이 훔쳐보기하고 똑같이 답을 썼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연구참여자 2만 합격했다. 이에 친구는 그것보라며 미국으로 떠났고 연구참여자 2는 혼자 독일 문화원에 남아 초급, 중급, 상급반까지 공부했다.

공부하면서 다른 젊은이들은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2는 자신도 목표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독일에 가서 1년만 공부하고 오겠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연구참여자 2의 어머니는 딸이 한국 사회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네가 스스로를 잘 조절하는 아이니까 외국에 가서 배우고 힘들면 돌아와라. 간다면 도와주겠다.”라고 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도움으로 여권을 만들어 아버지께 말씀을 때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반대했다. 그래도 1년만 있다가 오겠다고 했고 어차피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독일에 도착한 후 다음날 눈을 뜬 연구참여자2는 배가 고팠는데 자신이 음식을 사다줘야 한다는 것조차 몰랐음을 깨달았다. 이후 유학하면서 자신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바짝 들었다. 유학은 자신이 온실에서 살았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차츰 정리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3) 독일 미술 대학 진학 좌절

“여기 와서 제가 시험을 봤어요. 그게 그때는 하데카였어요. 전문대학이죠. 거기서는 어떤식으로 시험을 준비를 해오기를 원하는지 그걸 해야 했는데 못한거죠. 그래서 준비를 막 해서 갔더니 거기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그림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하고는 안맞는다. 그런데 프랑스하고는 너무 잘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프랑스식으로 배웠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저도 사실주의, 구상주의로 해왔는데 그걸 보고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이 프랑스하고 맞으니까 파리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냐.”

독일 미술 대학에 입학하여 1년만 독일 화풍을 배우고 돌아가려 했는데 독일 미대에서 불합격이 되었다. 독일식 화풍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베를린 자유대학 치과에 들어가서 체류하면서 미술을 계속 공부했다. 조소, 회화, 미술 역사 등을 미술 전문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며 배웠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미술 관련 일을 하면서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자신을 심사했던 사람들을 후에 다시 만났고 친구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이제는 독일에서도 알려졌기에 다시 미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자신은 미술계에서 영원히 떨어져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친구들은 왜 그 졸업장에 그렇게 연연하느냐고 의아해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2는 그것이 한국인의 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은 독일에서 누구나 알아보는 화가가 되었지만 그래도 미대는 나왔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능력만으로 인정되는 사회가 아니기에 자신이 화가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이주자인 자신이 미술 대학 졸업장 없이도 자기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한국은 아버지의 반대, 사회적 제약, 졸업장이란 형식적인 관념으로 인해 폐쇄된 사회로 인지하고 있다.

3) 장년기

(1) 유학생 대표 총회장 활동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외국인 총학생회장 겸 학생 대의원 시절에, 외국인들은 여기서 두 번 독일어 언어시험(PNDS)을 봐서 떨어지면 도시를 떠나야 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한 번 더 볼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세 번으로 해놨어요. 너무도 짧은 독일 언어로 무식이 용감하다는 옛말이 있듯이 정말 용감했죠. 그러면서도 너무 용감하게 외국인 학생 6천 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생각하면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오히려, 오 우 나인 그래요. 그때는 너무 몰랐기 때문에 자신감 하나로 한 거죠. 그리고 주위에 독일어 잘하는 사람들이 서포트 하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연구참여자 2는 베를린 자유대학교(그 당시 6만 명의 재학생)에서 외국인 총학생회장이 되려 했던 것이 아니었으나, 우연히 대의원선거를 거쳐 외국인 총학생회장에 선출되

었다. 그리하여 외국인 대학생 대표가 되어 다른 대의원 60명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그리하여 외국인이 시험을 두 번 볼 수 있었던 것에서 세 번으로 하여 유학생이 독일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결과를 만드는 것을 통해 연구참여자 2의 리더십이 발현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대의원과 외국인 학생회장 활동을 총 10년 정도 하였다. 다른 대의원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이룬 여러 가지 일들은 인천의 이민사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여 그곳에 남아있다.

(2) 미술대회 참가, 남편을 만남

“이제 중간중간에 1990년 이때부터 제가 베를린 박람회 베를린 미전 거기에 참여 하게 됐지요. 그림이 좋으면 진짜 전공인들 하는데만 걸고 그림이 안 좋고 그러면 판매 걸고 그러는데 저는 전공인들 있는데 걸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된 기회가 되는데 이제 몇몇이 미전을 운영하는 분들이 작품들을 전문인들 작품들만 설명을 해주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제 그림을) 설명한다고 해서 갔더니 우리 제 남편이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때는 제가 그림을 방향할 때였어요. 정신적으로 방향. 과연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게 정말 괜찮은건가? 막 이려고. 인생이란 도대체 뭐가 이려고. 내가 계획했던대로 운영이 안되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인생을 그린거 같오다. 그러면서 크게 그리고 용감하게 하라고.”

연구참여자 2는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졌지만 주변에서 반대하였던 영향으로 미대 입학이 여러 번 좌절되었다. 처음에는 아버지에 의해 좌절되었고, 두 번째는 화가들의 만류로 좌절되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는 미대 총장이 미래의 전망이 좋은 치대를 졸업하고 그림은 취미로 하라는 조언을 하며 미대 진학을 반대했기에 3차 좌절되었고 결혼 후 미대 진학 의사를 화가인 남편에게 밝혔을 때 베를린미대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없고, 전후 1945년부터 비구상이 그 주류를 지니고 있다며 역시 반대하여 4차 좌절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2는 그의 평생에 미술 대학 졸업장을 가지지 못했다. 미술 대학에 가서 그림을 배우고 화가가 되어 활동하려던 계획을 이루지 못했고 1년만 미술대에서 유학하고 돌아가려던 계획이 미대에 입학하지 못함으로써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유학할 당시에는 독일에서 화가가 된 것도 아니었고 한국에 돌아가도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상황에서 남편을 만남으로써 삶의 방향전환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1984년경에 독일에 유학하여 치의학과에 다니면서 미술도 계속 배우고 그림을 그렸고 1990년대에는 미술대회에 참가하였다. 이곳에서 연구참여자 2의 그림이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당시 미술 전시회 운영진에 있었던 남편이 연구참여자 2의 그림을 설명

하게 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다른 모임에서도 만나면서 가까워졌고 후에 결혼하였다. 그때 연구참여자 2는 유학 후 자신의 진로와 인생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의 방황을 겪을 때였다. 마음이 어려웠던 시기에 만났기에 결혼했다고 하였다.

(3) 내 인생의 우물 같은 사람

“마음이 후하다고 그럴까요? 후하고 저를 격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림을 정말 원한다면 차대 그만두고 그림 그려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보고 아 우리 아버지와 정반대의 그런, 그림을 열심히 해 그러면 거기서 성공할 수도 있어 이렇게요...(중략). 그거였어요. 당신 그림그리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죠. 처음 만났을 때는 설명해주고 그런 거였지만 그림을 참 잘 아는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쪽에서는 아, 젊은 학생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사람이 참 겸손하고 좋은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허풍쳐서 과시하지않고 과장 안하고 있는대로 보여주고 푸근하고...(중략). 남편이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풍요로운 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2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그림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지만 언제나 그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항상 반대, 또는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연구참여자가 가장 원하던 “그림을 그리라.”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미래를 말해준 사람이다. 그것이 연구참여자 2가 남편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 주요 이유이다. 연구참여자 2의 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경제적 무능력에 대한 관념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었기에 자녀들이 그림을 그리지 못하도록 막았고 연구참여자 2는 유학 후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자신이 유학하여 치대를 전공했지만 조그만 공간에서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암흑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할 당시에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성공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남편의 말은 연구참여자 2의 마음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2의 남편은 대학교수였고 화가였으며 미술협회 임원이었고 독일 교과서에 시가 실린 시인이었다. 연구참여자 2는 남편과의 결혼은 자신이 우물 곁의 푸른 나무가 되게 하였다고 하였다.

(4) 치대를 포기함

“병원에서 당신은 항원체가 없다고 지금하면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상의를 했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남편과 상의를 하니까 의사한테 다시 상의를 해서 애가 어떤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자. 가서 보니까 애는 정상

이고 결론은 저한테 달려 있는 거죠. 치과 대학을 시험을 보려면 이 증이 있어야 되는 데 이 증을 하려면 애들하고 접촉이 있어야되요.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어차피 나는 그림 그럴거니까 아주 가볍게 희생을 한거죠.”

연구참여자 2는 치대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하차했다. 그 이유는 남편과 결혼하고 아기를 가졌는데 치대 졸업을 하기 위한 마지막 학기는 실제로 치아 교정을 해주는 과목이었다.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을 진료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홍역에 걸린 아이가 있을 때 연구참여자 2에게 항체가 없다면 임신한 아기가 홍역에 의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으니 병원에 가서 알아보라는 권고를 치대 교수에게 들었다. 이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연구참여자 2는 홍역에 대한 항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기는 건강했으나 앞으로 그 마지막 수업을 마치려면 아이들을 진료해야 했고, 그렇다면 태아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기에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치대를 중단했다. 연구참여자 2는 치대를 한 학기 남기고 중단한 것은 아깝지 않다고 했다. 직업이 목적이었다면 그때 한 학기를 마쳤거나 아니면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합격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치과 의사를 했더라도 그림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 학기 남은 치대를 그만둘 것인지 아닌지의 결정이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아이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치과의사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림을 할 것인가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2는 그림 그리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5) 창조를 위해 지속하는 노력

“미술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캔버스가 작던 크던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이잖아요. 조그만 이 사각형 안에 제 생각이나 제가 보았던 것을 표현을 하는 건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하나의 잉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끊임없는 잉태를 통해서 자아를 좀 충실하게 형성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조형을 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아 나는 예술인이다. 이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없으면 저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 흠을 만지면서 작업을 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거기서 결정이 나더라고요. 아 나는 이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제가 볼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야는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분야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는 그리기에서 신큐비즘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큐비즘¹⁾이라

1) 큐비즘: 입체파. 1907-08년경 피카소와 브라크에 의해 창시된 20세기 가장 중요한 예술운동의 하나이다. 과거의 회화가 '시각의 리얼리즘'이었음에 반해 큐비즘은 '개념의 리얼리즘'을 주장하여 삼차원적인 현실 세계의 개념을 이차원적 회화로 번역함과 동시에, 회화를 하나의 미적 존재로 이루어내는 것

는 기존의 원리에 자신이 새로 고안하며 좀 더 새로운 구성의 효과를 노리는 것, 그것을 신큐비즘이라고 했다. 연구참여자 2가 말하는 신큐비즘은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그 형태를 깎고 단순화시켜 그리고자 하는 사물을 새로운 형태로 펼쳐내려는 시도라고 하였다. 작은 캔버스 안에 자신이 담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조형을 하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치대에서 사람들을 진료하며 느꼈던 감감함이 아니라 “손으로는 조형을 하면서도 머리로 미래를 구상하고 다른 것을 구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이 일이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인 것 같다고 하였다.

4) 노년기

(1) 인생의 수수께끼를 해결함

“한국에서 목을 조이는 억압된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저 혼자만 생각했지 제 주위에 친구들은 전혀 그것을 억압됐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 제 식구들이 저를 결혼시키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 뭔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생각한거예요. 한국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남았다.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해야 한다.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한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결혼은 아버지가 중요한 거고 저는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 할 일이 뭔지 모르면서도 아버지한테 저는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랬어요. 맨날 그랬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저도...(중략). 성취가 됐어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문학과이고 그다음에 그림, 예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그냥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뭔가 오거니제이션을해요. 기획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끝까지 성공시키고 동료들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해요. 그리고 잘 돼야 되고. 이런 것을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에서 아버지의 통제는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것이었다. 주변에서 보면 아버지의 통제를 억압이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연구참여자 2는 그렇게 느꼈다.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했을 때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은 할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인조차도 그 할 일이 뭔지 몰랐다. 그리고 이주하고 결혼하고 미술을 계속하면서 연구참여자 2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았다. 자신이 할 일은 문학과 그림, 예술을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2는 이와 같은 자유로운 시

을 목적으로 하였다. 운동으로서의 큐비즘은 제1차대전으로 인해 좌절되었으나 20세기 미술과 디자인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네이버 지식백과, 미술대사전, 2019. 9. 18 검색).

스텝, 즉 아버지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생각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율적으로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싶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감자 살롱도 운영하고 있어요. 문학 모임이예요. 이름을 밥 살롱으로 해도 되고 김밥 살롱으로 해도 되는데 독일 사람들이니까 감자 살롱으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겨울에 한 독일 친구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추우니까 모두 이 집으로 온 거예요. 돌아가신 친구의 부인이 감자국을 만들어 놓았고 초대됐던 손님들은 따뜻한 감자국 한 사발을 놓고 예술에 관한 대화를 하고 또 서로 사귀게 되는 좋은 정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게 이들의 문화구나. 그렇담 우리 화랑에서 이들의 문화로 감자 살롱을 하면 좋겠다 싶었죠. 이것을 계기로 문화와 문학을 하는 후원회가 형성됐죠.”

연구참여자 2는 문학 모임을 만들고 모임의 이름을 지을 때 음식 이름을 생각하였다. 음식은 이주자들이 가장 늦게 적응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문화의 특성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요소가 된다. 문학 모임의 이름을 독일에서 사랑받는 음식 재료의 하나인 감자를 사용하여 이름으로 지었다. 이 모임에서 음악, 시, 이야기 등이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개인에 의해 자유롭게 발표되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듣고 서로의 느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모임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것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2는 한국에서도 소설을 출판하고, 시집을 내고 그림을 전시한다. 이러한 미술을 포함한 예술과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이 오래전 아버지에게 연구참여자 2가 말했던 뭔가 할 일이 있다고 했던 그 일이라는 것이다.

(2) 삶-나를 찾는 과정

“저를 구성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왔던 것,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제가 가장 최측근에 있는 것은 가족이지만, 가족이 가장 가까이 있지만 결국은 저예요. 가족이 원하는 것 다해주면서도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결국에 가고자 하는 것은 예술인이니까 결국은 그 길은 끊임없이 가야한다. 끊임없이 가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결국은 제 내면의 세계로 돌아가는 건데 모든 활동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죠. 결국은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많은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새로운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많이 생기고.”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만약 자신의 정체성을 잊게 되면 이주자의 삶에서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고 휩쓸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

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어디에서나 표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예술을 통해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 길은 끊임없이 가는 길이며 끊임없이 자신과 투쟁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3. 연구참여자별 임파워먼트 형성과정

지금까지 각 연구참여자의 생애사를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각각의 범주화에 나타난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경험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이제 3장에서는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한 한인 여성의 임파워먼트 형성 과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1) 연구참여자 1의 임파워먼트

연구참여자 1의 생애 동안 임파워먼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첫째,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자각, 둘째, 주도성 획득, 셋째, 성찰적 변화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자각은 경제적 빈곤에 의한 교육기회의 불평등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능력이 인정되기보다는 위계에 의해 억눌리는 것이 있었다. 이주 후에는 거주국 구성원들에 의하여 이주민의 문화가 덜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후진적 문화로 치부되었다.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 1을 좌절하게 하고 실망과 낙담에 이르게 하는 경험에서 연구참여자 1은 자기 삶의 주도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삶에서 주도성의 획득이 있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관한 효능감과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경제적 빈곤에 의한 교육기회의 불균등에 맞서서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고 여성에 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항하여 자신만의 길을 찾는 내적 자립을 실행하였다. 프랑스에 유학한 후에는 거주국의 편견이 이주민을 동화의 대상으로 보거나 이주민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표출하였다. 그리고 거주국 구성원들의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어 반박하기도 하였다. 한편, 유학을 통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기회들이 있었으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버거웠던 길을 거부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리고 거주국에서 결혼하여 가족관계를 통해서 상호문화에 관한 존중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여 가정의 평화를 가져왔다.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을 무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즉 가난, 차별, 편견, 위계에 의한 억누름, 여성을 비하함, 이방인으

로 여김, 등과 같은 요인과 마주할 때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실행함으로써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선택을 하였다. 프랑스 문화가 더 선진문화라는 인식에 대항하는 의미로 동양문화를 더 자세히 공부하였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외부의 침해에 대해 자신의 방어막을 만드는 행위이다.

셋째, 성찰적 변화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의 삶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이 거주국에서 이방인이 되어 살아보았으므로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회가 편견과 차별을 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1의 임파워먼트는 그의 삶 전반에 행해졌고 이 과정은 연구참여자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연구참여자 2의 임파워먼트

연구참여자 2 또한, 그의 생애에서 어떻게 임파워먼트가 형성되었는지를 첫째, 자신의 무력감 인식, 둘째, 주체성 획득, 셋째, 성찰적 변화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자기 자신의 무력감 인식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2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생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함으로써 화가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외에 억압과 통제로 인한 사회적 활동기회의 축소 또는 박탈이 있었다. 유학 후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한 좌절, 실망이 있었다. 그리고 화가가 되어 활동하는 현재는 계속되는 창조의 작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인지하는 것이 있다.

둘째, 이러한 환경에서 연구참여자 2의 주체성 획득은 주변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것에 있다. 미대에 가는 것이 아버지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스스로 미술을 배우는 길로 나아갔다. 그리고 유학 후에도 미대에 진학하는 것이 또다시 좌절되었으나 다른 학과에 다니면서도 단과로 미술을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면서 미술을 배웠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미술 대전에 참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갔다. 또한, 국제결혼을 통해 서로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왔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의 삶에서 그의 의지가 꺾이고 좌절하고 방황할 때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길로 나아가는 의지를 실행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되고자 했던 화가가 되었고 활발히 새로운 창조를 하는 작업을 지

속한다. 이러한 것은 연구참여자 2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 2의 임파워먼트는 그의 삶에 성찰적 변화를 가져왔다.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이 예술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곧 자신을 찾는 과정과 잇닿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둥글게 다듬어져 타자와 공존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것은 문화가 다른 남편과 살면서 배운 것이기도 하고 독일에 유학하여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술적 창조과정을 통해 자신이 진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만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예술 안에서 자신과 만난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관한 인식과 자기 삶에 대한 주도성 그리고 타자에 대한 긍정적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은 임파워먼트 과정으로서 한 번의 과정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생애 동안 지속하여 재생하며 형성된다.

V. 결론

지금까지 1970-80년대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하고 거주국 남성과 결혼하여 정주한 한인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생애사에 근거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생애 현장 전반에 걸쳐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역경을 경험하였다. 한국의 어린 시절에는 개인 스스로, 가족에 의해, 사회적으로 통제되거나 가난으로 인해 또는 위계에 의해 배제되거나 억눌림을 당하는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그러한 환경에 굴복하기보다는 돌파구를 찾고 어려운 환경에 저항하며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고 강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삶에서 자신이 가진 무력감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체성을 가졌다. 자기 삶에서의 주인이 되는 것 역시 여성의 임파워먼트 과정의 하나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삶에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던 특성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또한 현재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을 실행하면서 스스로 성찰한다. 이러한 성찰은 임파워먼트 과정이 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임파워먼트는 생애 동안 계속해서 형성되며,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인식은 임파워먼트를 통해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에서 정명희(2009)의 연구와 결과를 같이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생애사에 근거하여 고찰하였기에 유학을 통해 재외에 정주하게 된 한인 여성들의 임파워먼트에 관

해 조금 더 깊이 있게 고찰한 결과를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은 첫째, 거주국 문화의 압력과 이에 대한 대처에서 임파워먼트가 형성되었다. 즉, 거주국의 구성원들은 이주한 한인 여성을 문화적으로 미개하게 보는 자문화 중심적 사고(思考)가 있었다. 이에 대항하여 거주국의 잘못된 문화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옳바르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지켜냄으로써 삶에서 주체성을 가졌다. 이는 임파워먼트의 형성과정의 하나이다. 둘째, 고학력 여성이었던 유학한 한인 여성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므로 실망과 좌절을 겪을 때 다른 대안을 찾는 것에 적극적이며 중단하지 않았던 특성이 있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의 궁극적 도달점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 즉 자신을 찾아가는 성찰이었다. 두 연구참여자는 자신들이 평생 가졌던 꿈을 실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 프랑스의 연구참여자는 한국의 노동자를 위한 삶을 살고자 했던 꿈을 이루지 못했으나 한국 민초(民草)의 삶을 세상에 드러낸 한국 소설을 프랑스에 번역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나는 누구인가?'에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독일 연구참여자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 자신과 만나는 과정을 경험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처럼 노년이 되고 자신의 삶에서 전심전력하여 살아오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자신과 만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1970-80년대 해외에 유학한 한인 여성의 임파워먼트 형성과정을 찾는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의 세 가지 논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억압적 행태가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 손위 형제들에 의해 행해지거나 직장 상사에 의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거부의 표현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회피 즉 그 현실을 떠나는 것이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는 여성에 대한 위계적 억압을 거부하는 것에서 태동하였다. 둘째, 해외에 유학하여 정주한 한인 여성들에 관한 연구의 희소성이 있다. 유학한 후 재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에 직면하여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여성의 임파워먼트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그리고 자녀세대를 통해 다음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그들의 파워를 긍정적으로 펼칠 사회적 장을 마련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재외한인 여성에 관한 관심과 이해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지영(2005). 여성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 : 지체 및 뇌병변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계르만(2010). 해외한인사 1945-2000.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김민수(2015). 여성결혼 이민자의 사회자본과 임파워먼트,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은(2012). 1920~30년대 미국유학 여성지식인의 현실인식과 사회활동.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안나·최승아(2013). 결혼이주여성 임파워먼트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9(2), 189-229.
- 김영모(1985). 해의 유학과 신 엘리트의 등장. 아카데미논총, 13(1), 162-173.
- 김영순·김진희·강진숙·정정희 외(2018). 질적 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박옥자·여경환(2016). 다문화 수용성, 의사소통, 부부갈등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국제 결혼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도를 대상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2), 149-167.
- 법무부(2015). 대한민국 출입국 심사 60년사(1954-2014).
- 서민지(2014).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에 초점을 둔 '청소년의 자기 이해' 단원의 교육내용 선정 및 구성 : 한·미 가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우은정(2010). 노인교육커뮤니티를 통한 노인임파워먼트 형성에 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미영(2006). 신여성 최영숙론 : 여성의 삶과 재현의 거리. 민족문화연구, 45, 293-329.
- 윤인진(2003). 캐나다 한인의 이주와 사회적응. 재외한인연구, 13(1), 133-166.
- 은성희·신동윤·최중진(2015).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미치는 영향. 해결중심치료학회지, 2(1), 41-64.
- 이동성(2013). 생애사 연구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에 대한 탐구. 초등교육연구, 26(2), 71-96.
- 이숙진·김안나(2013).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다문화 지원기관의 상호작용. 가족과 문화, 25(2), 234-269.
- 이용주(2012). 민간경비조직 구성원의 변혁적·서번트 리더십이 팔로워십 임파워먼트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정(2012). 1970년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공부' 경험과 가부장적 젠더규범. 교육사회학연구, 22, 227-266.
- 이희영(2018). 이주여성들, 정치를 관통하다 — 재독 한인 여성들의 1970년대 체류권 투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연구, 117, 237-286.

장순란(2003). 한국 최초의 여성 독문학자 전해린의 삶과 글쓰기에 대한 조명. *독일어문학*, 21, 149-174.

정명희(2009).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변인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정철(2015). 서번트 리더십이 개인성과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성장욕구 및 부하성숙도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승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혜련(2014).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과정과 맥락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명민·김기덕(2013). 기든스(Giddens)의 성찰성 이론을 통한 임파워먼트의 재해석. *한국사회복지학*, 65(2), 103-130.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권기돈 역(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서울: 새물결.

〈ABSTRACT〉

A Life-historic Study on the Empowerment Process of Korean Women studying in Western Europe in the 1970s-80s

Hyekyeong Nam · Youngsoon Kim

This study investigated empowerment has been portrayed in life histories of Korean women who studied in western Europe in 1970-80s, through the life history research method. To fulfill the purpose of this study, researchers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the life history research method with two Korean women who studied in France and Germany.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categorizing empowerment in individual's recognition of hopeless about the self, self-directed living life, and reflective attitude about life.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disappointments and frustration in their lives through recognizing hopeless about the self. However, instead of giving up in reality, they developed their empowerment through personal leadership, interaction with others, cooperation, support, and the individual's persistent efforts. They lived to know how they can become the true self, and this continuous reflection of their lives has become a process of finding the self. In fact, there are number of Korean women that reside outside of Korea. Although they hold a strong identity as Koreans, only few connections exist between these women and their home country. For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society and overseas Korean women, there is a need for various in-depth studies on them.

Key words

Studying Abroad, Korean Women, Life History, Empowerment, Identity

논문 투고일	2020. 06. 21
논문 심사일	2020. 07. 10
게재 확정일	2020. 07. 10

남혜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100, 인하대학교 서호관 221호
ssalguaja@naver.com

김영순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100, 인하대학교 서호관 217호
kimysoon@inha.ac.kr